

성탄절
설 교

하나님의 선물

<누가복음2:8~14>

한 세 일 목사 (고베교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달 전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이런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양 무리를 지킬 때, 갑자기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더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두려워하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시 이 유대땅은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군인들의 억압적인 통치아래서 고통받던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히는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의 표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양들을 들에 두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려는 때 하늘에서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날 베들레헴 저녁 들판에는 하늘의 천사의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 욕심은 우리 속의 평화를 사라지게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세리로 세워 같은 민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야 할 제사장들도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자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리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셨고 또한 가난한 이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는 평화는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는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한 어린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 이름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은 삼십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모든 배신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용서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성령을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을 받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왕을 모시는 날입니다. 이날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복된 날입니다. 또한 이렇게 2천년 전의 기쁨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소식은 세상에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쁜 선물입니다.



네팔인과 합동 성찬 예배

고베, 오사카, 교토와 합동 여름 학교도

교토남부교회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네팔의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고 매주 토요일 예배당을 빌려주고 있다. 현재 약 4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네팔 기독교인들은 일본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 가정이나 공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다양한 교단의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구도자들도 많이 있다. 네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 장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

2024년 여름에는 처음으로 고베, 오사카, 교토의 네팔 아이들과 교토남부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합동으로 여름 학교를 했다. 문화도 말도 음식도 다르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다. 평소에는 장소가 떨어져 있어 네팔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나 분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ZOOM으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다.

네팔 아이들에게는 피부와 피부가 닿으며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뻐한다. 언어는, 네팔 아이들은 네팔어, 모두 함께 이야기 할 때는 일본어, 예배나 찬양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오고갔다.

지난 10월 세계성찬일 주일예배는 고베, 오사카, 교토의 네팔교회와 교토남부교회 합동으로 성찬예배를 드렸다.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확인했다. 점심 사랑의 만찬은 교토남부교회에서는 비빔밥을, 네팔 교회에서는 치킨 비리야니를 제공하여 풍성한 교제가 되었다.

교회 사용 초기부터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내 주신 이 일본 땅에서 선교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해야 한다는 강한 소망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지역 선교를 꼭 실천합시다!」 함께 줄곧 기도해 왔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새로운 선교 비전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나라와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보고 : 아라이유카 목사)



아슈람기도수양회를 개최

주제 「잠잠히 주님을 만난다」 때를 기다림

11월2일 오후3시부터 오사카교회에서 「잠잠히 주님을 만난다」라는 주제로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최 아슈람기도 수양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62명이었다.

박시영목사의 사회와 森克之장로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었다. 관서연합성가대가 '선한 능력으로', '주의 품에 품으소서'의 특별 찬양이 있었고, 은회중이 함께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했다. 이명신목사가 중보기도를 인도하였고, 그 후 전도부장 박영자목사가 강사 소개를 하였다.

강사 松本雅弘목사(C I S K 크리스챤·라이프성장 연구회 주사)가 잠잠히의 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침묵하는 것 등을 가르쳐주시고 30분의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2절부터 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여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실천했다. 그 후 3사람이 그룹이 되어, 각자가 받은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나눔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어, 20분이 금방 지났다. 그 후, 松本목사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체험적인 메세지를 전해주셨다.

베데스다연못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며, 그리고 지금도 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낫고자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일어나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도부장 박영자목사로부터 감사 인사가 있은 후, 내년에는 꼭 1박을 하는 아슈람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함으로 집회를 마쳤다.

(보고 : 전성삼)



제34회 수양회를 개최

「앞으로의 우리의 사명」 주제로



서부지방회 여성연합회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고베 하버랜드 온천 만요클럽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제34회 수양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양회에는 8개 교회에서 총 41명이 참가하였다. 개회예배는 윤풍자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부지방회 회장 한세일 목사(고베교회)가 "주께서 함께하시는 자" (창세기 39장 1~3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나고야 은혜와 진리 교회 이종하 원로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약함을 포함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뉘는 어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결국은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위해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떡을 온전히 먹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강연 후에는 양율자 회장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바로 근처 고베항에서 쏘아 올려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함께 즐기며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폐회예배는 양율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중재 목사(가와니시교회)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갈2: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수양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기쁨에 찬 밝은 모습으로 귀가하였다.

(보고 : 최미혜자)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 개최 11개 교회 팀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2025년 9월 14일(제2주) 오후 3시부터 관서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제31회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이 11개 교회, 약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는 강영자 사회부장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하고 사회자의 기도 후, 관서지방회 회장 김종권목사(히라노교회)가 '사랑이 뛰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신정자 회계의 현금감사기도로 제1부를 마쳤다.

제2부는, 관서여성회 유수미 회장의 인사로 시작하여, 이나나 선교부장의 사회로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관서지방교회 여성회 11개 팀이 참여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올해는 외부 공연자를 초청하는 대신 관서여성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얼굴체조와 찬양을 했는데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즐겁고 좋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성택 심사위원장의 총평 후 각 상이 발표되어,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었다.

올해는 특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출연을 폭넓게 요청하여, 여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도 기쁘게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또 새로운 시도로 '페스티벌상', '찬양상', '말씀상'이 외의 상은 순위를 매기지 않고 관서지방회 교회 등록 순서에 따라 수여하였다. 앞으로 시상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히라오카교회가 교회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부득이 참가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연락이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 찬양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관서지방회 회장 김종권목사의 폐회기도로 제31회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의 모든 순서가 온 힘으로 마무리되었다.

(보고: 천말선)



롯 결혼상담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마음을 다해 성혼까지 돌보겠습니다.

代表 崔貞淑(神戸東部教会名誉牧師、経歴 30年)

〒659-0012 芦屋市朝日ヶ丘町10-35-504

090-3429-9707

<2026년도 목사·전도사 고시 및 선교사 가입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청원서는 종회 홈페이지(<http://kccj.jp>)의 메뉴「부서」→「신학교시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말에 올리겠습니다.)

●일 시 ①필기시험 및 면접 : 2026년 3월 9일(月)午前 10時~

· 10:00~10:30 오리엔테이션

· 10:30~17:00 필기시험 (종료 후 순차 진행)

②설교시험 및 면접 : 2026년 3月 24日(火)※필기시험 합격자만

신도집회 고베교회에서 개최 다른 지방회보다 앞서 제20회 기념으로

11월 16일(주일), 제20회 신도집회가 서부지방회 신도부 주체로 고베교회에서 열렸다. 이 신도집회는 다른 지방회보다 앞서 2003년 11월 제1회로 시작하여 올해 2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7개의 교회, 64명(장년회 28명, 여성회 25명, 청소년 8명, 어린이 3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관서지방회에서 회장 김종권목사(平野教会), 부회장 吉井秀夫(京都教会)을 비롯하여 7명이 참가해주셨다.

제1부 개회예배는 서부지방회 장년회 회장 양창희(武庫川教会)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중재목사(川西教会)가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시편 50: 2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그날 드린 예배헌금은 明石教会 교회당 수리 현금으로 드렸다.

제2부에서는 간증의 시간이었다. 청년회의 福田峻大(川西教会)는 「믿음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여성회의 최미해(川西教会)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것」, 장년회의 윤성철(川西教会)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언어」라는 주제로 뜻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었다. 그 후에는 그룹을 나누어 「신앙 간증 그리고 계승」이라는 주제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번 그룹은 처음으로 「어린이」 그룹도 마련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세대를 아울러 함께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 집회를 통해 한마음으로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걷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보고 : 임영재)



<연말 연시 업무 안내>

총회 사무국은 연말 연시를 아래 기간 휴업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1월 6일》

祝・聖誕

- 総会長 : 張慶泰(船橋)
- 副総会長 : 金明均(名古屋)
- 白承豪(神戸)
- 書記 : 朴成均(牧師)(歌山第一)
- 副書記 : 林基明(福岡)
- 会計 : 吉井秀夫(京都)
- 宣教委員長 : 李重載(川西)
- 教育委員長 : 蔡銀淑(大垣)
- 社会委員長 : 申容燮(神戸)
- 神学考試委員長 : 朴栄子(豊中第一復興)
- 信徒委員長 : 尹鐘憲(明石)
- 憲法委員長 : 中江洋一(広島)
- 救済基金委員長 : 金勝正長老(豊橋)
- 財政委員長 : 吉井秀夫長老(京都)
- 全国教会女性連合会長 : 宋福姬(名古屋)
- 平和統一議論委員長 : 李明信(大阪)
- 憲法規則等改正検討委員長 : 柳町功長老(横浜)
- 力ナダ長老教会在日宣教 100周年委員長 : 趙顯奎(別府)
- 総幹事 : 鄭守煥(新居浜グレース)

2026년도 목사·전도사 고시 및 선교사 가입고시

●장소 : 在日韓国基督教会館 (大阪 KCC)

●신청서류 마감 : 2026년 2월 10일(月) 도착분까지

●提出先 : 総会事務局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電話番号 (03)3202-5398 FAX (03)3202-4977

神学考試委員会

委員長 : 朴栄子 書記 : 李明忠

(問い合わせ TEL 090-3872-3207)

총간사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며

— 일본기독교단 시코쿠교구 「가을 심포지움」에 참가하고 —

총간사 정수환

지난 11월10일, 日本基督教団 四国教区 東予分区의 주최로 「가을 교회 심포지엄」을 교단 新居浜교회에서, 그리스도신문 편집장 松谷信司씨를 초청하여 개최했다. 주제는『교회의 <성장 가능성> 재발견』으로 일본 교단/교파를 불문하고 교회, 기독교 관계의 학교, 기관(신문/출판) 등이 처한 현상인식과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온라인을 포함해 30명이 참가했다.

강연에서 각 교단/교파의 겸무(兼務)/대무(代務)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숫자가 제시되었다. 일본침례연맹 5/316 교회(1.6%), 일본동맹기독교단 9/252교회(3.6%), 일본기독교단 201/1686 교회(11.9%), 일본복음루터교회 47/134교회(35.1%), 일본성공회 113/316교회(35.8%). (데이터 북 '하나님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FCC소책자) 2016년 자료에서).

일본기독교단에는 정년제가 없으며 대무는 후임 목사 취임 까지의 교역자 파견으로 KCCI의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겸무는 한 교역자가 두 개 이상의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침례연맹에서는 신도가 훈련을 받아 교회가 인정한 교역자(신도교사)가 있어서 겸무/대무의 비율이 낮다고 한다.

더 나아가 전국 개신교회 전체로 보면, 약 7,700(2018년)에 달하는 교회 중에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겸무/대무를 포함하면 1124교회(14.5%)로 증가 추세에 있다. 거기에는 기존의 교회 제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목회자가 부족해 조직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 1교회 1목사라는 모델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 교세 침체에 의해 「내향적」 성향이 되어 있어 위기의식이 부족한데다가 고로나 이후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난민」의 증가 등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코로나 이후의 가능성과 현재 교회의 「취약점」을 주목하고 「취약점」을 「발전 가능성」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화가 가져온 가능성이다. 온라인을 통해 외부인이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다. 예배와 목회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고, 평소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교회 안을 본 적이 없서 마음을 먹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 내용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교인 외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 의식하고, 교회 용어를 다용하지 않고 알기 쉽게 필요한 내용(예: 예배 개시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기하는 등)으로 개선해 가는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온라인을 통해 타교파, 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며, 「믿을」 생각은 없지만, 「기독교를 알고 싶다」 층에 대한 접근으로 강요하지 않고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온라인을 활용해 교회의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전달을 실시하는 것은 동시에 교회의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지방교회에서는 온라인 전달을 하기 위한 지식이나 재정력이 부족하기 쉽다. 그리고 (사회와의) 세대간의 차이나 내향지향으로 지역에서의 존재감이 약하다. 또한 교회 특유의 폐쇄성, 동질성을 요구하는 성향,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바꾸어 나가야 하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세대는 일요일 오전중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묶이는 것에 대한 장벽의 높이와 방문자 접수시 개인정보를 듣게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 더 나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기독교를 알고 싶다」는 층에 큰 벽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정 종교나 단체에 물들고 싶지는 않지만 고립될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상담 상대로서 교회보다 채팅GPT에 의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교회를 기피하게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교회가 「취약점」을 「발전 가능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인원이 적다는 것은 관계성이 깊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행사가 적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관계성이나 활동을 형성하기 쉽다는 것이고 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가까운 교회나 업체/행정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인근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시설(교회당이나 목사관 등)을 활용해 나가는 것, 고령자가 있다는 것은 기억과 이야기를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단이나 교구(지방회)는, 겸임목회/다수교회를 전제로한 체제를 마련하고 온라인 전달을 위한 환경정비나 설비 설치의 재정적 지원, 인적 재산의 유용하게 활용, 교역자/교인을 대상으로 Harassment(괴롭힘) 교육과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회가 독재/권위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대등/평등/민주적인 조직 형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정보공개,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방문자를 어렵게 하지 않고 장애물을 낮추고 신자가 아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정보를 발신하고 지명도를 높이고 교회의 강점을 제인식하여 지역의 특성과 당면과제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외의 인맥이나 신뢰관계를 평소로부터 구축해, 타교파, 타교회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식견을 넓히고 이의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길러야 한다.

이번 강연에서 KCCJ 총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추진해야 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느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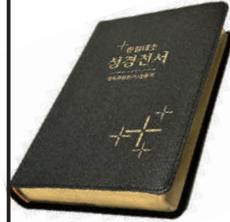
韓国的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価格: 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